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1~2019년 해양경제발전지수
- ▶ 이슈 포커스 : 중국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 건설 정책과 시사점
- ▶ 동향 & 뉴스

■ 2011~2019년 중국 해양경제발전지수 (OE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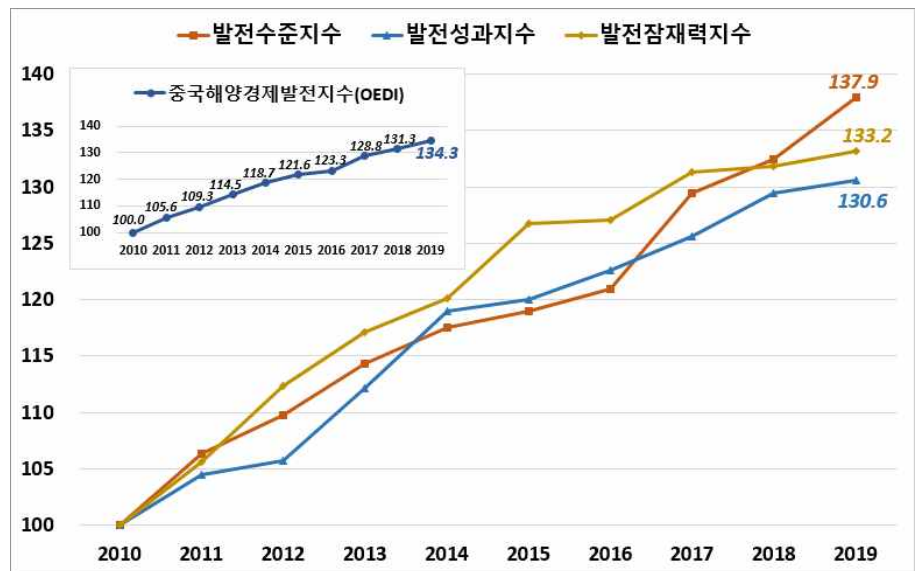
구분	OEDI	발전수준지수	발전성과지수	발전잠재력지수
2010	100.0	100.0	100.0	100.0
2011	105.6	106.3	104.5	105.6
2012	109.3	109.8	105.7	112.3
2013	114.5	114.3	112.1	117.1
2014	118.7	117.5	119.0	120.1
2015	121.6	119.0	120.0	126.8
2016	123.3	121.0	122.6	127.1
2017	128.8	129.4	125.6	131.3
2018	131.3	132.4	129.4	131.8
2019	134.3	137.9	130.6	133.2

자료 : 「2020 중국해양경제발전지수」, KMI 작성

중국리포트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하실 경우, 자료원을 「KMI 중국리포트」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KMI All Rights Reserved.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1~2019년 해양경제발전지수



자료 : 중국 국가해양정보센터, 「2020 중국해양경제발전지수」, 2020. 10.

2019년 중국해양경제발전지수 134.3, 2011~2019년 평균 상승률 3.3%

'중국해양경제발전지수(OEDI)'는 중국 해양경제 발전상황을 반영하는 종합적인 지수이다. OEDI는 발전 수준, 성과 및 잠재력 세 가지 하위지수로 구성되어 있다. OEDI는 2011년~2019년 연평균 3.3% 상승하여 중국의 해양경제 발전이 안정 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9년 OEDI는 134.3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3포인트(2.3%) 상승했다. 그 가운데 발전수준의 OEDI에 대한 기여율은 41.1%, 발전성과의 기여율은 29.2%, 발전 잠재력 강화의 기여율은 29.7%를 기록하였다. 10년 동안에 중국 해양경제 각 분야의 발전은 전체적으로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다.

2011~2019년 발전수준 지수는 연평균 3.6% 상승했다. 2019년은 137.9로 전년 대비 4.2% 상승했다. 이는 해양 경제효익성 제고와 경제규모의 확대 발전부문의 기여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2011~2019년 발전성과 지수는 연평균 3% 상승하며, 2019년은 130.6로 전년 대비 0.9% 소폭 증가했다. 민생개선의 발전성과 기여 비율 증가 높게 나타났다. 2011~2019년 발전 잠재력 지수는 연평균 3.2% 상승했다. 2019년은 133.2로 전년 대비 1.1% 소폭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과학기술 혁신 기여가 가장 돋보인다.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1~2019년 중국해양경제발전지수
- ▶ 이슈 포커스 : 중국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 건설 정책과 시사점
- ▶ 동향 & 뉴스

### 지수 동향

CHINA CONTAINERIZED  
FREIGHT INDEX

구분	01-03	12-11
종합지수	897.53	1411.98
일본 항로	731.59	755.30
구주 항로	1,069.06	1745.22
미서부 항로	681.52	1215.99
미동부 항로	884.09	1309.96
한국 항로	602.18	601.71

주 : '01/03'는 2020년 1월 3일 지수  
자료 : 상하이항운교역소

CHINA COASTAL BULK  
FREIGHT INDEX

	01-03	12-11
종합지수	1,121.76	1290.54
석탄	1,038.96	1362.01
곡물	933.03	1214.05
금속광석	1,069.81	1231.95
정유	1,925.55	1513.10
원유	1,557.48	1541.72

자료 : 상하이항운교역소

## 이슈 포커스 : 중국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 건설 정책과 시사점

세계의 주요 해양중심 도시는 항상 세계경제의 발전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시대에 따라 그 기능은 점차 변해가고 있다. 현재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는 해양산업 발전의 촉진, 해양경제 종합경쟁력의 강화, 대외개방 수준 제고, 국제영향력 향상, 나아가 전체 국민경제발전 견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의 '해양강국' 및 '21세기 해상실크로드' 추진 과정에서 '글로벌 해양중심도시'의 건설은 핵심적인 추진 전략이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에서의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 도시별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 정책과 경쟁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선전시의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 전략에 대해 상술하고, 이러한 전략들이 한국의 해양중심 도시 건설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한다.

### 1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의 개념과 포지셔닝

#### 1.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 개념

##### 1) 해양중심 도시 개념의 제시

2017년 5월에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전(前)국가해양국이 발표한 「중국 해양경제발전 '13·5' 계획」에서는 상하이, 선전 등의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 건설 추진이 제시되었다. 이는 중국에서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의 개념이 처음 정식으로 제시된 것이다.

중국에서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 용어는 2012년에 노르웨이 선박 박람회(Nor-Shipping)와 오슬로 해운기구가 공동으로 발표한 "The Leading Maritime Capitals of the World" 연구 보고서에서 나온 개념을 중국 베이징대학교 해상실크로드연구원 쟁춘위(张春宇) 고급연구원이 번역하면서 최초로 사용했다. 이 보고서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4회 발표되었는데, 중국의 홍콩과 상하이는 4년 동안 연속 10위 권 안에 포함되었다.

"The Leading Maritime Capitals of the World" 연구 보고서에서 해양중심도시 평가지표는 ①해운센터, ②해양금융과 법률, ③해양과학기술과 교육, ④항만과 물류, ⑤도시의 매력과 경쟁력 등 5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쟁춘위는 현재 세계 블루 이코노미 발전의 추세를 고려해 위의 지표외에 두 가지 경쟁력 지표를 추가로 제시했다. 첫 번째는 도시의 글로벌 거버넌스에서의 지위와 작용이다. 이는 해양 도시가 역내와 세계 해양분야에서의 영향력과 리더십에 관한 지표이다. 두 번째는 도시의 배후지 경제 발전수준이다. 전통적인 해양경제 개념과는 달리 '블루 이코노미'는 육·해 통합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배후지 경제 발전수준은 해양중심도시를 가름하는 중요한 평가 요소이다.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1~2019년  
중국해양경제발전지수
- ▶ 이슈 포커스 : 중국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 건설 정책과 시사점
- ▶ 동향 & 뉴스

### 2)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의 함의

쟡춘위<sup>1)</sup>는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국제해운 중심의 개념을 뛰어넘어 해운, 무역, 물류와 해운 관련 서비스에 있는 장점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해양금융, 법률 등 고급 해양서비스의 선도, 해양과학기술과 해양발전체계의 혁신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또한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는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에서 선도역할을 발휘하며, 역내 또는 글로벌한 가치가 있는 공공재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만 한다. 쟡춘위는 해양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완비된 경영환경, 해양산업 클러스터, 국제적인 편리한 생활환경, 선도적인 해양산업과 함께 해양기업과 고급인재를 끌어들이고 집중시키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저우러핑(周乐萍)<sup>2)</sup>은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를 글로벌 도시, 해양도시와 중심도시의 통합으로 보고 있다. 즉 글로벌 도시의 국제영향력과 대외개방수준, 중심도시의 역내 규모효과와 파급효과 및 해양도시의 특성을 모두 갖추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를 "글로벌 도시의 지위를 갖추고, 일정의 해양특색을 지닌 도시"로 정의하며, 또한 역내에서 해양특색이 강한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우러핑 주장을 종합하면, '글로벌 해양중심도시'는 세계 해양발전 체계의 중추나 세계 해양도시 네트워크 체계에서의 중요한 노드로 간주된다. 이는 한편으로 해양발전을 핵심기능으로 세계 해양경제 발전에 참여하고, 다른 한편으로 한 지역에서 해양경제발전을 특색으로 하는 중심지로서 전체 지역경제의 발전을 견인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는 시범적 역할을 발휘하는 동시에 국제영향력을 강화시켜야만 한다.

### 2.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의 기능 포지셔닝

저우러핑은 글로벌 금융중심 도시, 글로벌 해운중심 도시의 개념을 참조해서 글로벌 해양과학기술, 글로벌 연해문화관광중심, 글로벌 해양무역중심 도시 등의 단일 속성을 가진 특색적인 해양중심 도시를 포함시킨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각 해양중심 도시의 포지셔닝이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가 글로벌 도시 체계에서 있는 역할과 지위도 다르다는 것이다. 글로벌 중심 도시의 속성을 가진 해양중심 도시는 글로벌 해양발전 네트워크의 중추로서 글로벌 도시의 국제지위와 능력을 가져야 한다. 독특한 전문성을 가진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는 글로벌 해양발전 네트워크의 노드로서 역내에서 도시의 지위 및 세계 해양도시의 역할을 동시에 보유해야만 한다.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는 도시의 해양속성에 따라 세계 해양경제무역, 운송, 해양산업발전중심, 해양과학기술혁신중심, 해양문화관광중심 등의 역할을 담

1) 쟡춘위(张春宇), 如何打造“全球海洋中心城市”, 中国远洋海运, 2017년 제7호

2) 저우러핑(周乐萍), 「中国全球海洋中心城市建设和对策研究」, 中国海洋经济, 2019년 제1호.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1~2019년 중국해양경제발전지수
- ▶ 이슈 포커스 : 중국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 건설 정책과 시사점
- ▶ 동향 & 뉴스

당해야 한다. 즉 해양산업, 해양과학기술, 해양서비스, 해양교류 등 단일기능이나 복합기능을 가져야 한다. 이에 따른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의 기능 포지셔닝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해운서비스의 중심이다.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는 역내의 해운중추와 물류서비스 중심뿐만 아니라 세계 해운체계에 참여하여 세계 해운서비스 네트워크 중의 한 노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대화된 항만시설, 지능화된 관리 네트워크 및 국제화된 서비스 능력을 가져야 한다.

둘째, 해양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이다. 현대적인 해양산업 체인을 갖추어야 하고, 항만과 도시가 일체화된 국제 산업단지, 국제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를 가진 산업단지 등을 구축해야만 한다. 특히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국제기업 및 세계 유명한 해양관련 브랜드 제품의 집적지가 되어야 한다.

셋째, 해양과학기술 교육 중심이다. 일류의 해양과학기술 R&D센터, 선진 해양과학기술 성과 전환센터 및 교역센터를 건설하는 동시에 해양관련 학교 등의 설립을 통해 인재육성 중심지와 해양 전문 인재 집적 중심지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해양과학기술 혁신의 선도지역이 되어야 한다.

넷째, 해양문화교류 중심이다. 도시의 해양문화 자원과 도시 브랜드의 경쟁력을 통해 국제도시 경제무역 협력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문화 교류의 통로를 확대하며, 글로벌 무역의 노드와 문화 중심지로 건설한다.

다섯째, 해양공공서비스 중심이다. 역내의 해상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해양 공공서비스, 해사관리, 해상구조, 해양재해 예방·감소 및 해상 법 집행 등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세계적인 해양관리 공공서비스와 종합 정보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해양 모니터링과 정보서비스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간의 해양환경 모니터링, 해양재해 예보, 해양 생태관리 및 해양 정보서비스 체계의 수립을 촉진해야 한다.

## 2 중국의 도시별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 정책

### 1. 중국 7개 도시,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 제시

쑹춘위가 제시한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의 표현은 중국정부에게 채택되어 관련 정책문건에서 정식으로 사용하게 된다. 중국 정책문건에서 처음으로 적시된 것은 바로 「해양경제발전 '13·5' 계획」이다. 이 계획에서 "상하이, 선전 등 도시의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의 건설을 추진하며, 투융자, 서비스무역, 비즈니스 관광 등 분야에서 대외개방 수준과 국제영향력을 향상시키고,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선도자와 주력군이 되어준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선전과 상하이뿐만 아니라, 텐진, 다롄, 칭다오, 닝보, 저우산 등 연해도시도 연이어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 건설의 목표를 제시했다. 아래 [표 1]을 통해 7개 도시가 제시한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 관련 내용이다.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1~2019년 중국해양경제발전지수
- ▶ 이슈 포커스 : 중국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 건설 정책과 시사점
- ▶ 동향 & 뉴스

[표 1] 7개 도시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 정책문건

지역	정책문건	발표시간	주요내용
선전 (深圳)	「해양강국의 첨병이 되기 위한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 가속화에 관한 결정」	2018.09	- 선전의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 3단계 목표 제시 - 2035년까지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 기본 완성
	「웨강야오 대만구 발전계획」	2019.02	- 선전시의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에 대한 지지' 재차 확인
	「국무원이 선전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형 시범구 건설 지지에 관한 의견」	2019.08	- 선전의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 가속화 지지, 건설의 방향 명시
	「해양강국의 첨병이 되기 위한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 촉진에 관한 실시방안 (2020-2025)」	2020.09	- 해양경제 산업, 과학기술 혁신, 문화생태, 종합관리 및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의 5개 분야에 관한 정책조치 및 63개 중점사업 밝힘
상하이 (上海)	「상하이시 해양 '13·5' 계획」	2018.01	-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의 요구에 따라 대외개방의 수준과 국제영향력을 향상시킨다고 제시함 - 2020년까지 중국의 해양강국 전략과 상하이의 글로벌 도시 포지셔닝과 부합하는 해양사업 체계 구축 - 이 해양사업 체계는 발달한 해양경제, 선진 해양과학기술, 해양 친환경, 든든한 해양안전 보장, 절약적 해양자원 이용, 선진한 해양관리 등의 내용 포함
톈진 (天津)	「더 효과적인 지역조정발전 새로운 메커니즘 수립에 관한 실시방안」	2019.12	-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해양강국 전략을 이행하고, 해양관련 제품, 서비스와 자원에 대한 배치를 최적화시키고, 해양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추진하여, 해양과학기술 혁신체계를 구축함 - 해양도시로서의 문화특색을 돋보이게 하고 해양종합관리능력을 제고하여 해양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다롄 (大连)	「다롄시 해양중심도시 건설 촉진에 관한 지도의견」	2020.04	- 해양중심도시 건설의 5대 핵심과제 및 단계적 목표 제시 - 2025년까지 중국 북방지역의 중요한 해양중심도시로 건설; 2035년까지 동북아 해양중심도시로 건설
	「랴오닝성 국민경제사회발전 '14·5' 계획 및 2035년 비전 목표에 관한 건의」	2020.11	- 동북아 국제해운중심, 국제물류중심, 지역 금융중심으로서의 선도역할을 발휘하고, 동북지역 대외개방의 새로운 단지 및 글로벌 해양중심도시를 건설함
칭다오 (青岛)	'해양공세(海洋攻势)' 추진상황 질의문답 회의	2020.05	-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 제시
	산둥성정부 기자회견	2020.09	- 산둥성 정부는 칭다오시의 글로벌 해양중심도시에 대한 지지 표명
	2020년 양회에서 칭다오시장 이 제시한 '칭다오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 지지' 건의에 대한 자연자원부의 답변	2020.10	- 해양중심도시 건설에 있는 칭다오의 우위조건을 확인했고, 다음 단계에서 칭다오의 해양중심도시 건설 추진을 위한 조치를 제시했음
	「산둥성 국민경제사회발전 '14·5' 계획 및 2035년 비전목표에 관한 건의」	2020.12	- 칭다오를 '일대일로' 국제협력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국제해운무역 금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1~2019년 중국해양경제발전지수
- ▶ 이슈 포커스 : 중국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 건설 정책과 시사점
- ▶ 동향 & 뉴스

닝보 (宁波) 저우산 (舟山)	「2020년 해양강성 건설 중점 업무 리스트」	2020.03	융혁신 중심의 건설을 촉진함 - 2020년에 저장성은 '글로벌 해양 중심 도시'의 목표를 향해 주력하고, 닝보와 저우산은 글로벌 해양 중심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관련 계획 편성을 실시함
	「저장성 국민경제사회발전 '14·5' 계획 및 2035년 비전목표에 관한 건의」	2020.11	- 해양강성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저우산군도(舟山群岛)신구와 해양경제발전시범구의 건설을 심화시키고, 항만·도시의 융합발전을 추진하며, 닝보와 저우산의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을 지지함

자료: KMI 정리

## 2. 도시별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 경쟁력

2020년 10월에 중국 남방재경전매체그룹(南方财经全媒体集团) 산하의 싱크탱크가 발표한 2019년도 「중국 도시 해양발전지수 보고」에서 상하이, 선전, 광저우, 톈진 등 28개 연해도시를 선정하여, 해양경제 활력, 해양 대외개방 수준, 해양자원 확보, 해양과학기술 혁신력 및 해양문화의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상하이, 칭다오와 광저우는 각각 중국 동부 해양경제권, 북부 해양경제권, 남부 해양경제권의 대표 도시로서 톱3를 차지했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을 제시한 7개 도시는 10위 권 안으로 선명한 도시 특색과 경쟁력을 선보여 주었다.

### 1) 상하이,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에 앞장서

상하이는 뛰어난 해양경제 발전규모와 든든한 과학기술 혁신 기반으로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해양개방수준, 해양문화 매력의 2개 분야에서도 선두이다. 2019년 상하이 해양생산총액은 1조 372억 위안으로 상하이시 GRDP에서 27.2%를 차지했고, 전국 해양생산총액에서 11.6% 차지했다. 특히 상하이는 세계 최대 항만인 양산항을 보유하고 있는데, 항만 화물물동량에 있어 절대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상하이는 해양교통운수, 해양선박과 고급장비 건조, 해양관광업 등 현대서비스 산업 및 선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양바이오의약품, 해양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 등 해양 전략적 신산업을 새로운 발전엔진으로 구성되는 현대 해양산업 체계를 형성하였다. 린강(临港)지역은 해양플랜트장비와 전략적 신산업의 클러스터가 되어, 해양 과학기술 자원의 집적효과와 R&D성과 전환효과가 돋보이고 있다.

### 2) 선전과 칭다오,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에 큰 잠재력 보유

선전시는 국가정책 지원으로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에 강한 경쟁력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선전은 중국 개혁개방 이후 설립된 첫 번째 경제특구로서 해양경제 대외개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의 선전은 웨강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1~2019년 중국해양경제발전지수
- ▶ 이슈 포커스 : 중국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 건설 정책과 시사점
- ▶ 동향 & 뉴스

아오대만구 발전의 핵심 엔진으로 부상되었다. 2019년 선전시의 해양생산액은 2,600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8% 증가했으며, 선전시 GRDP에서 10%를 차지했다. 또한, 제1, 2, 3차 해양산업의 부가가치액이 해양생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2%, 30.6%, 69.2%를 기록하여, 안정적인 '3>2>1' 산업구조가 형성되었다.

또한 선전시는 비교적 완비한 해양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 해양전자정보, 해양고급지능장비, 해양바이오의약, 크루즈·요트의 4대 산업으로 선전시의 미래 해양산업을 이끌고 있다. 또한 선전시는 중국 전국 최초의 해양종합관리시범구, 국가해양경제과학발전시범구와 국가해양경제혁신발전시범도시로서 해양혁신에 있어 앞장서고 있다.

칭다오는 도시규모, 경제총량에 있어 우세를 차지하지 않지만, 해양경제 혁신발전시범도시로서 강대한 해양연구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해양관련 일류의 과학연구기관과 대학교의 강한 연구역량에 의존해서 해양과학기술 혁신분야에서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 2020년 8월에 중국이 발표한 해양과학기술 지수에서 칭다오는 93.65의 높은 점수로 중국 국내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자연자원 과학기술혁신지수 시평가 보고(2019~2020)」에서 칭다오는 자연자원 과학기술 혁신과 해양혁신에 있어 중국 국내 선도자리에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향후 해양경제의 발전은 심해자원에 많이 달려있는데, 칭다오는 심해 과학기술 확보를 통해 '글로벌 해양중심도시'로 건설하는 데 강대한 실력과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상하이와 선전에 비하면, 칭다오의 산업구조는 더 전통적이고 규모도 비교적 작은 편이다. 따라서 칭다오에서 집중된 해양혁신 자원과 과학연구 성과를 어떻게 상업화시키고, 기술 우세를 어떻게 산업 우세로 전환시키는 것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 3) 기타 다른 도시, 국제경쟁력 향상 필요

저우산은 대표적인 군도도시이다. 도시면적, 인구 수량과 경제 총량 등 규모성 지표에서는 대부분 연해도시에 미치지 못 한다. 그러나 중국 최초의 해양경제 분야의 국가급 신구로서 우수한 발전구조를 가지고 있고, 각 해양관련 지표의 수준도 높은 편이다. 최근 들어, 저우산의 해양생산총생산액이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를 초과했다.

닝보는 국제해운중심도시에서 11위를 차지하고 있다. '저우산-닝보항' 통합 이후 2019년의 누적 화물물동량은 11.19억 톤으로 연속 11년 세계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2개 도시는 경제력과 국제 영향력 등 지표에서 '글로벌 해양중심도시'와의 격차가 아직 남아 있다.

텐진시는 직할시로서의 우위조건을 가지고 있다. 2018년 텐진시 해양경제 총생산액은 5,028억 위안으로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7%에 달했다. 텐진시는 뛰어난 해양과학기술 혁신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해양관련 학교 수량은 압도적이다. 텐진시는 해수담수화와 종합이용, 해양플랜트, 해양공정건설,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1~2019년 중국해양경제발전지수
- ▶ 이슈 포커스 : 중국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 건설 정책과 시사점
- ▶ 동향 & 뉴스

해양환경보호, 해양바이오의약의 5개 분야에서 과학기술혁신체계를 기본적으로 형성하였다. 또한, 톈진시는 국가가 지정된 전국해양경제혁신발전시범지역 및 시범도시로서 북방 해양경제권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다롄시는 동북아, 극동지역에 위치하여 중요한 전략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 다롄은 중국 제1차레의 ‘연해 대외개방 도시’, ‘북방해운센터’, ‘수입무역 혁신 시범구’로 선정되었는데, 중국 정부가 다롄의 발전을 매우 중요시하고 이를 북방 경제권의 중요한 도시로 건설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다롄은 도시규모, 경제총량, 혁신산업, GRDP성장, 국제화 등 면에서 아직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많은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위의 해양도시는 중국의 ‘해양강국’ 전략 추진에 따라 현대화와 국제화 건설이 더욱 강화되면서 해양경제의 발전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향후 ‘글로벌 해양중심도시’의 건설을 위한 기반과 조건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3 선전의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 전략

선전시는 중국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을 가장 먼저 제시한 도시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선전시는 국가의 정책지원의 힘입어 지역 자체 관련 정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 건설을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1. 선전의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 정책

2018년 9월에 선전시가 발표한 「해양강국의 첨병이 되기 위한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 가속화에 관한 결정」에서는 ‘3단계’ 목표를 설정했다. ①2020년까지 해양경제의 고품질 성장을 실현하면서, 과학기술 혁신능력을 현저히 제고하고, 생태환경을 안정적으로 개선하며, 해양종합관리 수준이 국내 선진 수준에 도달해 해양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해양중심도시의 건설을 위한 든든한 바탕을 마련해 준다. ②2035년까지 아태지역 해양분야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글로벌 해양중심도시를 기본적으로 건설한다. ③21세기 중엽까지 해양발전이 세계 일류수준에 도달되는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의 전면적 건설을 통해 해양종합 실력과 세계 영향력을 선보여줄 수 있는 선도자가 된다.

선전시는 2019년 6월 ‘10개의 하나’ 사업을 공개하면서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의 목표가 더욱 명확해졌다. 이 ‘10개의 하나’ 사업은 ①국제화와 종합성을 지닌 해양대학교 하나 설립 ②선전해양과학연구원 하나 설립 ③글로벌 해양싱크탱크 하나 설립 ④심해·원양 종합보장기지 하나 건설 ⑤국제 참치거래센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1~2019년 중국해양경제발전지수
- ▶ 이슈 포커스 : 중국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 건설 정책과 시사점
- ▶ 동향 & 뉴스

터 하나 구축 ⑥중국해양공정그룹(中国海工集团) 설립으로 대표적인 현대 해양산업체제 하나 구축 ⑦국제해양개발은행 하나 설립 ⑧해양산업발전펀드 하나 설립 ⑨선전 국제해사법원 하나 설립 ⑩중국해양경제박람회 개최가 포함된다.

'10개의 하나' 사업이 공개된 지 두 달 후에 중국 국무원은 「선전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 건설 지지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선전시의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에 대한 지지를 명확하게 표명했다. 특히 이 의견에서 해양대학교, 국가심해과학탐사센터 및 국제해양개발은행의 설립에 대한 지지를 강조했다.

선전시는 '14·5' 계획 시기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9월에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 촉진에 관한 실시방안(2020~2025)」을 발표하여, 2025년까지 중국 해양경제, 해양문화와 해양생태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범도시로 발전한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이 실시방안에서 해양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해양경제 산업, 과학기술 혁신, 문화생태, 종합관리 및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의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일련의 구체적인 정책조치를 세웠으며 63개 중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표 2] '14·5' 계획 시기 선전시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 정책

분류	분야	주요내용
5대 해양분야	해양경제	- 해양플랜트, 해양전자정보, 해양바이오의약, 해양 자원 개발 등 신산업의 발전 중점으로 추진 - 해양금융과 해운·항만에 관한 개방·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국제화 수준을 높이고 해양경제의 비약적 발전 추진하여 글로벌 해양중심도시로서의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킴
	해양과학기술	- 해양교육연구기구의 설립, 해양전문인재 유입, 기업의 자주적 혁신능력 제고, 해양과학기술 혁신회랑 구축, 과학기술 서비스 강화 등 조치를 통해,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성과전환을 모두 포괄한 해양과학기술혁신체계를 구축하여 해양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선전의 글로벌 영향력을 향상시킴
	해양생태·문화	- 해양생태환경 보호, 해양문화발전과 도시발전을 긴밀히 결합시키고 국제연해관광도시를 중점으로 구축하며, 국제적으로 선전시의 해양문화 영향력을 강화함
	해양종합관리	- 해양계획체계 보완, 해양관리체계 보완 및 해양 인프라 건설 강화 등으로 스마트 해양 건설, 해양재해 예방·감소, 해양 법 집행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해양법제화, 정밀화 관리수준을 제고함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 국제고급 해양교류 행사를 개최하고 선전에서 국제해양사무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며, '세계자원+중국소비'의 원양어업 구도를 구축함 -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건설에 힘을 기울이고 국제해양법, 규제, 업계표준 제정에 있어 선전의 역량을 보여줌
63개 중점사업	40개 중점사업	- 국제해양개발은행, 해양대학교, 지능해양공정제조업 혁신센터, 국가심해바이오유전자은행, 국가원양어업기지, 국제참치거래센터, 선전해운·항만발전기금, 중국해양대학교 선전연구원 등의 설립을 추진함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1~2019년 중국해양경제발전지수
- ▶ 이슈 포커스 : 중국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 건설 정책과 시사점
- ▶ 동향 & 뉴스

	23개 신규 중점사업	- 국가심해과학탐사센터, 해양산업발전펀드, 중국해양공정그룹, 셔커우(蛇口)국제해양성(海洋城) 등의 설립을 추진함
--	-------------	--

자료: KMI 정리

## 2. 선전시의 향후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의 주요방향

### 1) 선전시 5개 구역 경쟁

선전시는 향후 5년 동안 글로벌 해양중심도시의 반열에 오를 계획이다. 현재 중국 전국에서 7개 도시가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경쟁을 치르고 있는데, 선전시 내에 있는 5개 구역도 핵심구역(核心承载区)이 되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난산구(南山区)은 셔커우(蛇口) 국제해양성과 선전해양과학단지의 건설을 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선전해양과학연구원을 설립했다. 바오안구(宝安区)는 해양신성(海洋新城), 즉 중국-유럽 블루산업단지의 건설, 그리고 중국해양대학교 선전연구원, 공항·요트부두의 건설을 위주로 추진하고 있다. 옌톈구(盐田区)에서는 연해공원의 재건사업, 연해잔도(栈道) 건축 등 산업이 추진 중이다. 따핑신구(大鹏新区)는 해양대학교, 해양박물관을 중점사업으로 여기고, 선전산터우(汕头)협력구는 스마트항만의 건설을 도모하고 있다.

### 2) 해양과학기술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

향후 선전은 글로벌 해양중심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양과학기술 혁신단지로 중점으로 구축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 여섯 가지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해양대학교 설립이다. 세계 해양과학기술의 이슈문제에 포커스를 맞추어 국제화와 종합성을 지닌 연구형 대학교의 포지셔닝을 설정하였다.

둘째, 심해과학탐사센터 설립이다. 이는 과학탐사선의 모항, 과학탐사선 및 심해종합실험장 등을 포함한다.

셋째, 해양 싱크탱크 설립이다. 융통성이 있는 체제로 해양정책, 해양법, 국제협력 등 분야의 고급 연구인력을 유입하고, 세계영향력을 가진 해양 싱크탱크를 설립한다.

넷째, 해양연구원 설립이다. 해양과학연구와 기술개발, 성과전환과 산업육성, 해양고급인력 육성, 해양 교육문화 보급 등 기능을 갖춘 종합적인 해양과학연구 플랫폼을 구축한다.

다섯째, 웨강오대만구에서 해양과학기술 산업혁신 계획 등 대형 해양과학기술 액션플랜을 발기하고 참여한다.

여섯째, 해양과학기술 성과전환 서비스센터를 설립하고, 해양과학기술 혁신, 기술이전 및 산업화를 위한 핵심정보 컨설팅과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1~2019년 중국해양경제발전지수
- ▶ 이슈 포커스 : 중국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 건설 정책과 시사점
- ▶ 동향 & 뉴스

### 3) 과학기술로 해양산업 발전 견인

선전시는 과학기술 이용을 통해 해양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해양 입체 관측망 시범사업 등을 통해 해양경제를 위한 해양관측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따른 해양관측, 해양전자정보 등 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둘째, 해운·항만 분야에서 5G기술, 자동운전기술, AI기술 등의 이용을 추진한다.

셋째, 해양위성이용시스템을 구축으로 해양위성 서비스의 산업화를 추진한다.

넷째, 중국-유럽 간의 해양 신에너지 산업 협력을 추진하고,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와 연계시켜, 세계 해양분야의 녹색발전 추세에 따라 해상풍력, '가연성 얼음(可燃冰)' 등 청결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킨다.

### 4) 해양금융 서비스 혁신, 국제협력 확대

선전시는 해운서비스 제도, 해운보험업무, 해양산업의 융자경로 및 해양과학기술 금융서비스 제공의 네 가지 분야에서 해양금융 서비스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국제적인 해양혁신 플랫폼 구축, 해양과학연구기구와 대학교의 유입 추진 등으로 해양분야의 국제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제적인 해양조직의 설립을 모색하고 국제해사위원회, 국제해사기구, 국제해양과학연구위원회 등 국제조직과의 협력교류를 강화하며, 세계 해양과학기술 도시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세계 해양과학기술 도시연맹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 4 시사점

중국은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 건설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중국정부와 각 지방정부는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 건설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 건설 정책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국가단위의 전략 수립과 기본계획 수립의 중요성이다. 중국은 “해양강국”, “21세기 해상실크로드”라는 국가의 전략아래 「해양경제발전 '13·5' 계획」에서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의 건설 계획을 담고 있다. 국가적인 기본방향은 지방정부의 해양중심 도시 건설 방향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간 해양중심 도시 건설에 따른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을 막아줄 수 있다.

둘째,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개방을 가속화해야 한다. 중국의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 추진 정책은 개혁과 개방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는 해양 산업, 금융, 과학기술, 문화 등의 중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1~2019년 중국해양경제발전지수
- ▶ 이슈 포커스 : 중국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 건설 정책과 시사점
- ▶ 동향 & 뉴스

심지이며, 세계적인 관련기업, 연구, 학교, 인재 등이 유입되어야만 한다. 중국은 이를 위해서 각 해양도시의 혁신과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글로벌한 인재, 기업, 관련기관의 집중을 위해서는 혁신을 통한 개방이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통한 글로벌 해양 산업 체인의 구축이다. 중국의 상하이, 선전, 칭다오 등은 해운, 해양신산업, 해양과학기술의 클러스터를 통한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 구축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글로벌한 산업체인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제적인 해양 관련 기관 유치를 통한 해양분야 국제 거버넌스 참여이다. 중국 선전은 국제적인 해양혁신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국제적인 해양조직의 설립을 모색하고 국제해사위원회, 국제해사기구, 국제해양과학연구위원회 등 국제조직과의 협력교류를 강화하며, 세계 해양과학기술 도시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세계 해양과학기술 도시연맹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 해양 관련 기관 유치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관련분야의 국제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글로벌한 해양중심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제 해양 관련 기관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해양과학기술과 제4차 산업 혁명 기술 결합을 통한 해양 도시 개발이다. 이러한 산업은 해양 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에서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은 해양산업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스마트 항만, 스마트양식장, 해양분야 빅데이터 구축 등을 통하여 관련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키고 있다. 향후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는 이러한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할 때 더 빠르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





## CONTENTS

- ▶ 통계로 보는 중국 해양 : 2011~2019년 중국해양경제발전지수
- ▶ 이슈 포커스 : 중국 글로벌 해양중심 도시 건설 정책과 시사점
- ▶ 동향 & 뉴스

## 동향 & 뉴스

### 해운 · 항만 · 물류

- [저장\(浙江\)자유무역구, 중국계 편의치적선 국제화물 연안운송 시범사업 시행](#)
- [2020년 1~11월 양산항 컨테이너 물동량 1,840만TEU 달성](#)
- [중국의 빠른 경제회복, 유조선 시장 진작할 것으로 예상](#)
- [COSCO Shipping Ports, 샤먼에 자동화부두 R&D센터 설립](#)
- [중국 국경통상구 적체로 중~유럽 화물열차 제외한 수출화물 적체 일률 중단](#)
- [「중국 항만 고품질 발전 보고서 2020\(해향 편\)」 발표](#)
- [상하이항, 서비스 외연을 쭉저우까지 확장](#)
- 2020년 상하이항 Sea & Rail 물동량 79% 증가 예상
- Sinotrans, 30억위안에 7개 유럽기업 인수
- 「장강삼각주 스마트해운 발전 보고」 발간
- 장난조선소, 올 한해 8척의 VLGC 교부
- Ningbo Zhoushan 항 다푸커우 컨테이너터미널에 국제노선 신규 개통
- 2020년 1~11월 톈진항 컨테이너 물동량 1,700만TEU 돌파
- ‘하이난성 ‘14·5’ 콜드체인물류 발전계획’ 공개 의견 수렴 시작

### 해양 · 수산

- [「중국 해양경제발전 보고\(2019~2020\)」 발표](#)
- [산둥성 ‘14·5’ 계획 시기 해양분야 건설 요점](#)
- [샤먼시\(厦门市\) 「해양경제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 발표](#)
- [칭다오시\(青岛市\), 해양목장과 레저관광 융합발전 추진](#)
- 칭다오시 해양정보서비스 연맹 설립
- 중국 해상풍력발전, ‘동쪽에서 서쪽으로 송전(东电西送)’ 통로 개통 목표
- 자연자원부와 세계자연보호연맹 양해각서 체결
- 산둥성 25개 성급 해양의식교육시범기지 명명
- 산둥성 2019년 해양생산총액 1조 4600억 위안 기록, 중국 해양생산총액의 16.3% 차지
- 「2020 중국해양경제발전지수」 발표